

파니움 - 넘버 투

남쪽 왕의 흥망성쇠

Jeff Pippenger

2025-02-27

우리는 지난 글의 말미에 이렇게 썼다. "10-15절은 1989년부터 일요일부터까지 북방왕, 곧 교황권에 의해 행해진 세 차례의 대리전을 나타낸다." 이 세 차례의 대리전은 40절에서 미국을 '병거, 배, 기병'으로 지칭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음 대리전은 11절에 의해 묘사되고 기원전 217년 라피아 전투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으며, 남방의 왕인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와 셀레우코스 제국의 대왕 안티오코스(안티오코스 마그누스라고도 함) 사이에서 벌어졌다. 안티오코스는 자신의 북방 왕국이 당한 패배와 영토 상실에 대한 보복으로 이집트를 응징하면서, 남방 왕국이 그의 왕국에서 빼앗았던 모든 영토를 되찾아 10절을 성취했다. 그는 그렇게 했지만 이집트 국경에서 멈추었고, 이로써 10절을 성취하며 1989년을 상징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기하여 막대한 군대를 모으리라. 그 중 하나가 반드시 와서 넘쳐 들어와 지나가리라. 그 후에 그는 돌아와 그의 요새까지 분기하리라. 다니엘서 11:10.

두 번째 대리전은 라피아 전투였다. 라피아는 국경 지대를 뜻한다. 그 전장은 안티오코스가 10절에서의 이전 침공을 중단했던 지점을 가리킨다. 세 번의 대리전은 진리에 의해 좌우되는데, 첫 번째 대리전이 마지막 대리전과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세 전쟁, 즉 10절과 11절, 그리고 13-15절의 세 번째 전쟁은 최초의 성취에서 동일한 역사적 인물이 모두 치른 것이다.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는 세 전투 각각에 등장하여, 예언적으로 그것들을 한 선상으로 묶어 준다. 안티오코스는 첫 번째와 마지막 전투에서는 승리하지만 가운데 전투에서는 그렇지 못하며, 그곳에서는 남방 왕이 승리한다.

라피아가 '변경'을 의미하듯, 우크라이나도 그렇다. 라피아 전투에서 처음 성취된 두 번째 대리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취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남쪽의 왕이며, 현대의 첫 남쪽의 왕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예언적 후손이다. 푸틴은 독일 통일 시 나토가 구소련 영토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논란의 합의에 근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푸틴의 동기는 5-9절에 나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동기와 1797년의 나폴레옹의 동기를 닮아 있다. 세 남쪽의 왕 모두가 깨진 조약을 근거로 북쪽의 왕을 상대로 한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사야서 23장에 따르면, 교황권을 상징하는 두로의 음녀는 한 왕이 다스리는 기간처럼 칠십 년 동안 잊혀질 것인데—이 기간은 여러 차례 밝혀진 바와 같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 곧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미국)이 통치하는 때를 가리킨다.

그 날에 두로가 칠십 년 동안 잊혀질 것이니, 한 왕의 연한에 따른 것이다. 칠십 년이 끝난 후에 두로가 기생같이 노래하리라. 잊혀진 기생아, 수금을 잡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아름다운 가락을 타고 많은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게 하라. 칠십
년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가 다시 자기의 샅으로 돌아가 땅
위의 모든 나라들과 음행하리라. 이사야 23:15-17.

상징적 70년 기간은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며, 이는 40절이
나타내는 역사이다. 70년이 끝날 때, 곧 일요일 법령이 임박할 때까지는 음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10-15절에 언급된 세 차례 전쟁은, 이 기간 동안 그녀가
예언적으로 잊혀져 있기 때문에, 교황권의 대리 세력에 의해 수행된다.

첫 번째와 마지막 대리전에서는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이긴다. 가운데 전투에서는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이긴다. 라피아 전투는 11절의 최초의 역사적 성취였으며, 그 구절과 그
역사적 성취는 교황 로마의 예언적 날 삼 일 반의 통치에 대한 병행 구절들과 결합되어야
하는 두 증인을 이룬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안의 두 성경 구절이, 그 역사적 성취와
함께, 11절의 변경의 전투의 예언적 특성을 제시하는데, 이는 먼저 라피아 전투에서
성취되었고 이어 1798년 끝의 때에 다시 성취되었다.

이러한 증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현대의 남방 왕'의 마지막 '블라디미르'임을
뒷받침한다. '블라디미르'는 흔히 '세상의 지배자'를 뜻한다고 정의되지만, 'mir'라는
단어는 '공동체'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블라디미르는 '공동체의 지배자', 또는
'공산주의의 지배자'를 의미한다. 푸틴은 독일 통일 후 합의된 경계를 넘어서는 나토의
잠식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다루던 합의가 깨졌다는 것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개입을
설명한다. 푸틴의 행보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만큼이나 나토와 EU를 겨냥하고 있다.
푸틴이 나토 배제 지역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나토와 EU의 잠식은,
셀레우코스 왕이 이집트 공주 신부를 제쳐두고 전처를 택했을 때 프톨레마이오스가
분노한 일과 유사하다. 그 깨진 조약은 1797년 톨렌티노 조약의 파기를 예고했다. 다니엘
11장에서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이길 때에는 깨진 조약이 관련된다.

이 파기된 조약은 독일이 재통일될 때 EU가 자신의 국경 밖으로의 나토 확장을
제한하기를 꺼렸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방의 왕인 푸틴은 대리
세력으로 대표되는 북방의 왕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나치가
가톨릭교회의 대리였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나치는 10~15절의 두 번째 대리전쟁의
상징이 된다. 세 번의 세계대전과 세 번의 대리전쟁—그리고 두 흐름 모두에서,中间的
분쟁에서 나치는 가톨릭교회의 대리인이다.

이들 대리전의 세 가지 최초의 역사적 성취에서,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는 각 전투에
참여했다. '안티오코스'의 어원과 북방의 왕으로서의 셀레우코스 왕국과 연관된 상징성이
안티오코스를 적그리스도, 곧 로마의 교황의 상징으로 지목해 왔다는 것은 자주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세 차례의 대리전의 역사에서는 두로의 음녀가 잊혀지므로,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에 담긴 '교황'의 상징은 그의 대리 권세를 가리킨다. 첫 번째와
마지막 전투에서는 미국이 로마의 뜻을 공공연히 수행한다. 11절에서 대리 권세는
우크라이나의 나치즘이지만, 전쟁에서 젤렌스키를 떠받친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국의
배와 병거였다. 표면상 두 번째 대리전에서는 이사야 23장의 칠십 년 동안 교황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숨겨져 있다. 미국은 자신이 짐승의 모든 특성을 발전시키는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숨겨져 있으며, 따라서 예언적으로 보아 두 번째 대리전이 전개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치즘이라는 대리 권세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몰락에 이를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떠받치는 땅의 짐승의 군사적 및 경제적 힘으로 남아 있다.

남방의 왕이 바빌론으로 가서 북방의 왕을 사로잡았던 때가 있었고, 베르티에 장군이 교황을 사로잡았을 때에는 그는 곧장 바티칸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는 우크라이나 측의 어떤 저항도 제거된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시사한다. 프톨레미가 점령한 왕국은 바빌론이었고, 나폴레옹이 점령한 왕국은 영적 바빌론이었다. 따라서 젤렌스키의 왕국은 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신민들로 대표된다. 이제 트럼프가 땅의 짐승의 전차, 기병, 그리고 함선의 지원을 철회했으므로, 우크라이나의 지원은 EU이며, 바로 나토의 잠식과 관련된 조약 파기에 대한 푸틴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집단이다.

EU 관료들을 이끄는 철학은 그린피스 운동이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초록'이라는 뜻이다. 젤렌스키는 환경주의라는 어리석은 글로벌 의제에 이끌리는 EU의 전쟁광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수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승리뿐 아니라 EU 전체와 나토에 대한 승리도 자축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 차례의 대리전은 진리의 표징을 지닌다. 첫 번째와 마지막 대리전에서는 남방 왕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동맹에 의해 패배한다. 처음에는, 가톨릭 전승의 파티마의 비밀 맥락에서 '흰' 또는 '선한' 교황으로 여겨지는 보수적 성향의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황과의 동맹에 의해 북방 왕이 승리를 거두었다. 현재의 교황은, 내가 이것을 쓰는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성향의 진보적 교황으로, 파티마의 비밀의 맥락에서는 '검은' 또는 '악한' 교황이다.

열네 절은 스스로 높아지나 넘어지는 '네 백성의 강도들'이 예언적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 그 이상이 확립된다고 밝힌다. 기원전 200년 파니움 전투에서 13절부터 15절의 성취 속에 이교 로마가 바로 그 전투와 관련된 쟁점들에 스스로 개입하였다. 파니움 전투를 다루는 이 세 절에서, 열네 절은 그 이상이 로마에 의해 확립된다고 밝힌다.

파니움 전투의 역사에서 보수적인 바티칸 I의 백의 교황은 레이건 시대에 시작된 일련의 여덟 명의 대통령 가운데 마지막 인물과 힘을 합칠 것이다. 레이건은 이전에 보수적인 바티칸 I 교황과 동맹을 맺은 바 있다. 그들은 1989년에 구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는 바로 그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레이건 시절,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의 동맹이 형성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이 파티마 예언의 선한 교황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 확신에 힘입어 그는 자신이 파티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해한 바를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여행한 교황이 되었고, 온 세상이 짐승을 놀라워하며 따를 때가 있으리라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역대 가장 널리 알려진 교황이 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공적 이미지는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과 동맹을 맺는 보수적인 바티칸 I 교황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레이건과 동시대인 교황의 예언적 특징 중 하나는 그의 대중적 이미지가 이정표로 표시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표지는 14절, 곧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 환상을 확립할 때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온 세상이 놀라며 뒤따랐던 교황이라는 예언적 특징을 성취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와 동맹을 맺게 될 보수적인 종말의 바티칸 교황을 가리킨다. 그 일이 일어날 때 환상이 확립되고, 그 환상을 확립하는 것은 교황이 파니움과 기원전 200년의 역사 속으로 자신을 끼워 넣는 것이다.

여덟 명의 대통령의 시작은 여덟 명의 대통령의 끝을 예증하며, 16절의 일요일 법령 직전에 잊혀졌던 두로의 음녀가 레이건에 상응하는 인물인 도널드 트럼프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역사 무대에 다시 등장한다. 그들은 마케도니아의 필립과 안티오코스의 동맹으로 표상되는 바와 같이, 어린 왕 프톨레마이오스로 표상되는 남방 왕국의 마지막 세대를 무너뜨린다. 성경 예언에서 어린아이는 마지막 세대의 상징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은 군사적 승리로 높아졌다가 어떤 유형의 교회와 국가의 딜레마 속에서 길을 잃는 남방 왕들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1989년과 첫 번째 대리전쟁을 표상하는 10절은 시작, 곧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문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표상하는 11절의 라피아 전투는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문자이다. 숫자 13은 반역의 상징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리 군대는 나치로서, 현대 세계에서 반역의 으뜸가는 상징이다. 파니움은 스물두 글자로 구성된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이다. 따라서 알파벳의 첫 번째, 열세 번째, 스물두 번째 문자를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가 이 세 차례의 대리전쟁의 구조를 진리로 규정한다. 히브리 알파벳의 스물두 번째이자 마지막 문자는 신성이 인성과 결합됨을 상징하며, 가까운 장래에 있을 파니움 전투의 성취는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어난다. 트럼프는 두 임기를 수행한 스물두 번째 대통령이다.

파니움은 이중의 동맹에 관하여 두 겹의 증언을 지니며, 두 경우 모두에서 그 동맹은 양 당사자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규정하는 동맹으로 제시된다. 필립과 안티오코스 사이의 동맹은 전략적 성격으로, 동지중해에서의 프톨레마이오스와 로마의 영향력을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협력은 파니움 전투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었다. 안티오코스는 필립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 이 원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필립의 역할은 보다 간접적이었으며, 그리스와 에게해에서 로마와 프톨레마이오스의 동맹세력을 묶어 두어 안티오코스가 코일레 시리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적·전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이 동맹에서 더 강력한 쪽이 안티오코스였고, 실제로 전투를 수행한 이는 오직 안티오코스였음을 지적한다. 그들의 동맹은 알렉산더의 옛 왕국과 연관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동맹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걸으실 때 파니움이 불리던 명칭인 가이사라-빌립보라는 이름이 보여 주듯, 우월한 수장과 그보다 낮은 종속자를 가진다. 따라서 가이사라-빌립보는 안티오코스과 필립에 상응하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과 분봉왕 헤롯 빌립에 의해 상징되는 그 동맹에서 가이사가 더 강력한 쪽이었기 때문이다.

'테트라르크'라는 말은 사분의 일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뜻한다. 가이사는 온 왕국을 통치하였고, 빌립은 한 영토의 사분의 일을 다스렸으며, 이로써 파니움과 가이사라-빌립보의 동맹들 안에서 빌립의 상징이 종속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헤롯 빌립과 함께 우리는 두 혈통의 상징을 보는데, 이 둘은 모두 하나님과의 파기된 언약

관계의 상징이다. 또한 알렉산더의 왕국이 네 부분, 곧 네 테트라르크로 분할된 것을 상기시키는 사분의 일의 반향도 보인다.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에서 성취될 파니움 전투에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즉 미국은 러시아를 격파하고 필립으로 대표되는 더 작은 세력과 동맹을 맺을 것이다. 그 더 작은 세력은 전투에 관여하되 직접적으로 참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전투는 미국과 푸틴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며, 라피아 전투 이후의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와 유다의 웃시야 왕이 보여 주듯, 푸틴의 격분과 교만에서 비롯된 종교적 논쟁과 분명히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와 웃시야는 군사적 성공으로 교만이 높아진 남방의 왕들이었으며, 그 후 오직 제사장들만이 수행해야 할 거룩한 일을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였다. 웃시야는 그 시도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렸고, 프톨레마이오스는 분노하여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5만 명을 학살하였다.

열세 절은 현대의 공동체의 왕, 곧 공산주의의 마지막 세대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전투를 지목한다. 트럼프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실제로 전장에 있지 않은 왕국의 제4 부분 출신 동맹과 함께 그렇게 한다. 현재의 사건들이 이를 증언하듯 우리는 11절의 결말에 가까이 와 있다. 라피아로 상징되듯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그는 이어 나병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집에 갇혀 지내게 된 웃시야의 사례로 상징되는 점진적 몰락을 시작할 것이다. 기원전 217년 라피아에서의 승리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의 통치는 부패, 사치, 그리고 부도덕한 고문들에게 의존한 탓에 악화되었다. 그는 기원전 204년에 젊은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권력을 확보하려는 음모의 일환으로, 장관인 소시비우스와 아가토클레스에 의해 암살되거나 독살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격동의 결말은 헬레니즘 왕실에서 흔했던 불안정과 음모를 반영하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의 쇠퇴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알렉산더 사후 세계 지배를 둘러싼 투쟁 속에서 나타난 문자적 성취들이 전형으로 보여 준 바와 같이, 남방 왕의 영적 성취의 한 특징은 '혁명'이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기에 영적 남방 왕이 된다. 현대의 남방 왕인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을 통해 탄생하였다. 프랑스 혁명에 도입된 철학이 프랑스 혁명의 무정부 상태에서 소련 혁명의 공산주의로 성숙하여 이르렀다는 사실은 남방 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공산주의는 혁명들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현대에 CIA는 비정부 기관들을 활용해 전 세계의 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해 활동해 왔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단계별 계획은 소위 색깔 혁명이라 불린다. 남방의 왕은 용의 세력이며, 글로벌리스트들도 역시 용의 세력이고, CIA의 색깔 혁명은 용의 세력의 징표다. 영적 남방의 왕으로서의 프랑스의 역사는 그 특정한 예언의 계열의 종결을 표시하는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 결말은 나폴레옹으로 대표된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를 남방의 왕으로서의 시작을 알리고, 나폴레옹은 그 종말을 알린다. 역사학자들은 나폴레옹을 워털루로 이끈 일련의 단계를 지적하며, 바빌론과 벨사살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과 달리 첫 번째 영적 남방의 왕이 점진적으로 종말에 이르렀음을 밝힌다. 현대의 남방 왕의 첫 번째 블라디미르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연속된 뇌졸중으로 2년에 걸쳐 사망했다. 일부는 그가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독살되었다고 추측하는데, 마찬가지로 일부는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그의 조연자들에게 독살되었다고 추측한다. 소련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남방 왕의 종말 또한 혁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련의 몰락에 기여한 모스크바의 시위는 1991년 8월 쿠데타(1991년 8월 19~21일) 기간 동안 벌어진 대규모 대중 저항이었다. 러시아 백악관 방어와 보리스 옐친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사건은 소련 강경파를 정면으로 약화시키고,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소련 붕괴를 가속화했다. 그 이전의 모스크바 시위들(예: 1987~1990)과 발트의 길(1989)이 동력을 쌓았지만, 1991년 8월의 시위는 모스크바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그해 말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다. 남방의 왕으로서의 러시아의 시작과 끝은 혁명으로 시작해 혁명으로 끝난다. 소련의 종말은 왕국의 점진적 해체였으며, 이는 프톨레미, 우시야, 나폴레옹, 심지어 블라디미르 레닌의 경우와도 마찬가지였다. 푸틴의 종말은 점진적 추락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즉시 시작된다. 그의 종말은 판이움 전투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미국이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동맹의 지원을 받으면서 왕국의 통제권을 장악한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가겠습니다.